

미세먼지 공약(公約), 공약(空約) 되나

국내·국의 감축공약 화려
저감 재원조달 방안 빠져
심상정 재원 확보책 눈에 띄어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도

대선후보들이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해결사로 나섰다. 하지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부족해 결국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50%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 한다고 공언했다. 공정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재검토하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부처와 부처, 부처와 지자체간 업무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통관리정책이 빠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공약이 한 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인 만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녹색교통진흥지역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대안한테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언급이 없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문 후보는 거의 모든 대책을 총망라해 놓았다”며 “재정낭비를 막으려면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없는 정책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는 춤추며 즐겁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에서 울동을 선보이며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 예코파워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와 함께 11월부터 4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가동률을 7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사후 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중일 장관급 의제로 머물러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연구와 대책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계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 안 후보가 공기 정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 ‘스모그 프리타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

도 대기오염 정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홍 후보는 이달 초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중국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노후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안은 생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것이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10조원 가량)가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다.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권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기후정의세’ 도입도 공약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는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저에너지 체계로의 산업구조 개편, 대중교통 활성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추미애, 전북 민심 겨안기 안간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전북출신 현 국회의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유세를 전북으로 정하고 지역 민심을 겨안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22일 남원, 전주, 익산 등 전북을 돌며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첫 유세지로 남원을 선택한 추미애 대표는 엄지척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정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국민통합, 부자전부, 행복만 전북 만들기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해낼 수 있다”고 외쳤다.

추 대표는 이어 전주로 돌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주 마 선거구 김은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전주유세에서는 원내정책부대표인 김한정 국회의원이 합류했다.

추 대표는 서민행보로 익산지역도 방문했다. 추 대표는 익산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환청취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현미, 설훈, 홍영표, 강병원, 김병관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도내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는 등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인재용 기자

국민의당 도당, 대통령선거 전북 선대위 출범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이 중심이 되기 위한 지역 각계각층 전문가 4,00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22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정동영 삼심선대위위원장, 김광수 삼심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군산시민을 버린 국민의당과 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과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조배숙 정책위의장, 유성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김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윤호 원내대변인, 김중희 국회의원, 임정엽 완전무장 지역위원장, 전정희 익산갑 지역위원장, 김호서 전주를 지역위원장, 강승규 전) 우석대 교수를 임명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 전주시의회 무소속 이원구 의원과 부안군의회 무소속 박천호 의원, 김형태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 선대위 발대식을 더욱 뜻깊게 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군산선대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기호 1번 문재인 국민주권 군산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군산시 수송동 도곡빌딩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대위 발족식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새물결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삼심선대위원장 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홍보위원장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 을)을 비롯한 도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당원,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철규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군산시민을 버린 국민의당과 맞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세력을 확실히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이라고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국민주권 군산선거대책위원회는 윤기원 목사, 김철규 전 도의원 등 8명이 공동선대위원장(김용화, 이현호, 조현식, 강임준, 최경태, 박재민)으로 임명했다. /군산=정형 기자

주승용 “사드반대 당론 변경, 39명 중 34명 찬성”

“선거운동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고, 전국 돌며 선거운동 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안철수 후보의 사드 찬성 입장에도 사드 반대 당론이 명시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데 대해 “39명의 의원들 중 5분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34명은 당론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

핑을 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원 소통방을 통해 39명 전원에게 어제부터 일일이 물어 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론변경) 찬성 34분과 반대 5분으로 갈렸다”며 “당론을 변경한 건 아니고 변경 절차는 밟아야 되지만 저희 당의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

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론변경을 위한 의중(개최요건인) 26명 이상 참석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입

장을 물어봤고 답변이 점점 다 왔다. 한 분만 의견을 안 밝히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5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사드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집중 비판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는 (사드배치를) 찬성하는데 국민의당은 당론을 유지한다는 문제에 대해 많이 토론할 때 언급이 됐다”고 의견수렴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Sponsors: Kwan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 etc.